

目次

- I. 老齡化의 觀點
- II. 老齡化의 進行
- III. 老齡化와 扶養
- IV. 老齡化의 對應
- V. 結 論

I. 老齡化의 觀點

人口轉換의 경험적 歸結은 西歐의 人口現象을 연상케 되며, 이는 産業化 初期에 多産少死의 人口類型이 少産少死의 형태로 移行되면서 人口의 老齡化를 경험케 된다는 점이다.¹⁾ 이러한 人口의 老齡化에 뒤따르는 課題는 福祉體系를 구축해야 하는 점이며, 福祉體系는 단순한 人口現象에 의한 對應策으로써가 아니라 社會構造的인 면에서 人間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公同의 생활터전을 구축하는데 기초를 두게 된다.²⁾

특히 최근 貧困의 차원을 넘어선 모든 社會는 福祉理念을 강조하고 이 理念의 틀에는 個人과 集團의 欲求充足과 삶에서 均衡과 調和를 이루는 차원을 理想으로 삼을 때 이에 相反된 問題의 예방과 해결은 그 실현을 목표로 하게 된다. 그러나 福祉의 追究란 일정한 상황에서만 국한할 수 없고,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서 삶의 價値를 구현하기 위한 象徵의 차원의 挑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福祉의 概念은 이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경주될 때만 그 실현도 가능한 것이다. 특히 오늘날 先進國과는 달리 많은 開發途上國은 貧困의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한채 過密人口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狀況에서 先進國의 技術導入으로 경제 발전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서 人口轉換은 급속히 進展되어 그 결과는 앞으로 老齡

*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 梨花女子大學校 副教授.

1) Jacob S. Siegel, "On the Demography of Aging", *Demography*, 17(4),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1980, pp. 345~360.

2) David D. McFarland, "The Aged in the 21st Century: A Demographer's View", In Lissy F. Jarvik, *Aging into the 21st Century: Middle Agers Today*, New York: Gardner, 1978.

社會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未來에 대한 우려에서가 아니라 이에 대비해야만 하는 주요과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유우엔」은 先進國의 中位年齡을 32.5歲로 보고하고, 開發途上國은 21.0歲로서 약 11歲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半世紀 후인 2025年頃에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의 中位年齡이 각각 38.6歲와 29.9歲로 그 차이가 8.7歲로 좁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은 오늘날의 先進國 보다 다소 높은 水準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65歲 이상 老人扶養比는 최근 先進國이 16.8水準인데 비해 開發途上國은 7.2水準으로 역시 현저한 隔差가 있지만 2025년에는 先進國이 27.6, 開發途上國은 12.4水準으로 開發途上國이 先進國의 1960年代 水準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현재 이 지구상에서 相反된 두 社會, 經濟 및 人口學的인 현상간의 차이를 좁히면서 선진국이 경험한 老齡社會의 問題를 개발도상국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을 예시하는 점이다.

人口의 老齡化는 開發途上國이라 할지라도 地域間 차이가 커서 韓國이 속한 東아시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진전될 전망이다. 최근 東아시아의 中位年齡은 24.7歲(韓國:23.8歲)로 南아시아나 南美의 21歲 水準과 아프리카의 17.3歲 水準과는 대조적인 狀態에 있으며, 이는 2025年頃에 東아시아가 先進國水準인 38.2歲(韓國:37.5歲)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老人扶養比는 최근 東아시아가 8.7(韓國:6.5)수준으로 2025年頃에는 19.8(韓國:18)水準으로 倍增하게 되지만 後進性 人口構造의 영향은 先進國의 2000年頃의 水準에 머물게 될 전망이다.³⁾

이처럼 人口의 老齡化는 人口構造上 老齡人口의 높은 비중과 絕對數의 증가현상으로 설명되지만 이와 관련한 社會·經濟的인 意味는 老人扶養과 老人生活에 관심을 갖게되는 것이다. 즉, 死亡力의 減少와 平均壽命의 延長은 短期間內에 人口構造에 영향은 줄 수 없지만 뒤따르는 出産力減少가 幼年人口層의 비중을 줄이면서 相對的으로 老年人口比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말해서 人口轉換의 初期段階에서 死亡力의 減少는 嬰兒死亡率의 현저한 改善이 人口構造 變化에 기여하게 될 뿐 老齡人口의 壽命延長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人口構造는 「피라밋」典型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며, 뒤따르는 出産力의 減少가 幼年人口層의 비중을 감소시키면서 老人人口比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어 人口構造의 老化가 시작된다. 이처럼 人口現象은 短期間에 人口構造를 뒤바꾸어 놓을 수는 없지만 出産力 및 死亡力변화의 複合作用으로

3)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Population Studies, No. 98, New York, 1986.

老齡化를 進展시키면서 노령사회의 특징을 엿보게 된다.⁴⁾

여기서 老齡人口의 특징은 性別 差異 死亡力이 性比를 낮추면서 老人人口 중 女性의 獨身 率을 높이고, 또 이는 社會·心理 및 生物學的인 면에서 精神的 肉體的 機能의 減退가 適應力의 減退로 이어지는 役割變化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社會의 變遷에서 老齡層은 貧困이나 疾病, 無爲 및 孤獨과 같은 이른바 四苦의 要因을 加重시키게 되고 이는 老人福祉의 當위성을 강조하는 점이다. 따라서 老人扶養은 肉體的, 情緒的 그리고 社會·經濟的인 複合側面에서 관심을 갖게 되며, 이러한 扶養負擔의 增加는 家族과 社會가 함께 責任을 共有해야 하며, 이는 構造的, 機能的인 問題인 것이다.

특히 今世紀에서 韓國의 人口變化는 社會變化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그 어느 때 보다도 急變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920年代만 해도 人口 1,000명당 30水準을 上廻하던 一般死亡率은 1950年代에서 15水準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7水準으로 급속한 減少가 있었고, 아울러 嬰兒 死亡率은 1/10의 감소를 나타내면서 平均壽命은 30歲内外에서 65歲 内外로 倍增現象을 나타내었다.⁵⁾ 그러나 出產力은 1920年代 까지만 해도 높은 死亡率에 比견되는 높은 水準으로 일반 출산율이 50水準을 유지했고, 이는 1960年代까지 미미한 감소로 40水準으로 저하되었다. 그후 出產力은 國家開發政策의 하나로 시작된 出產調節의 영향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반출산율과 婦人當 合計出產率을 半減시킨 結果를 가져왔다.⁶⁾ 이와 같이 死亡力減少에 뒤따른 出產力 低下의 交叉現象은 그간 人口構造에서 65歲 이상의 老人人口率을 3~4 퍼센트水準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는 後次的으로 人口構造에 影響을 주면서 2000年의 老齡人口는 6.2퍼센트로, 그리고 2025年頃에는 13퍼센트까지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老人扶養比는 최근 총 扶

4) • Alfred J. Lotka, *Theorie Analytique des Associations Biologiques, Deuxième Partie: Analyse Demographique avec Application Particulière a l'Espèce Humaine*, Paris: Hermann, 1939.

• Alvaro Lopez, *Problems in Stable Population Theory*, Office of Population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1961.

• Nathan Keyfitz, *Applied Mathematical Demography*, New York: Wiley, 1977.

5) • 孔世權·林鍾權·金美謙, 韓國의 死亡力과 死亡原因,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 金正根, “우리나라 平均壽命의 過去와 現在와 未來”, 韓國人口學會誌, 17-1, 1984, pp. 124~138.

• 金日炫, “韓國의 人口成長 推移와 展望”, 人口問題와 對策 세미나 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石南國, 李朝末期以降, 1925年に 至る朝鮮人口の推計について, 函館大學論究, 第2輯, 別刷, 昭和41年 12月.

6) 金日炫, 前掲書,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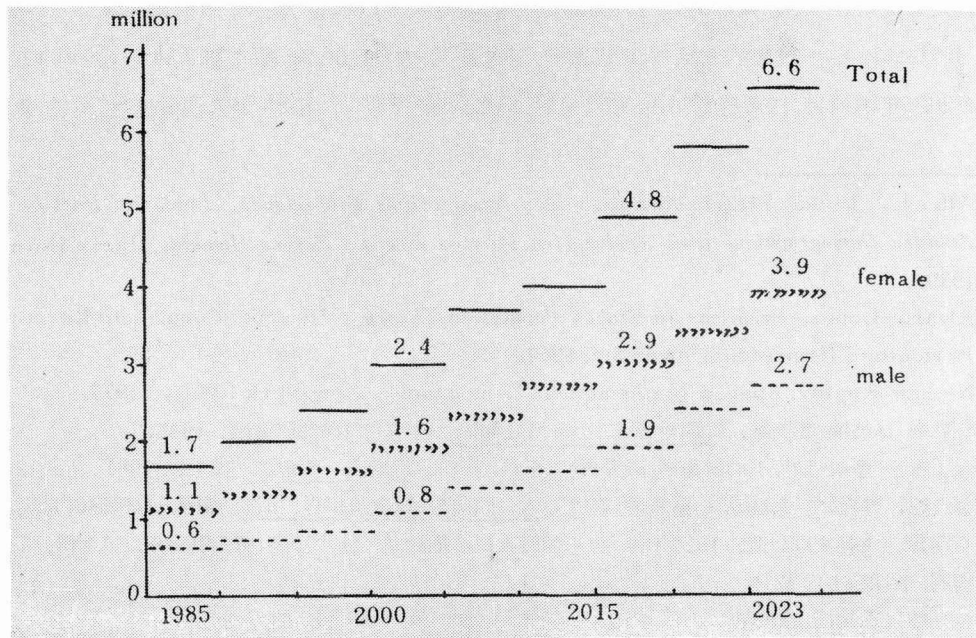
養比 중 12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0년에는 21퍼센트로, 그리고 2025년에는 42퍼센트까지 증가하면서 人口의 老齡化에서 扶養問題는 社會的으로 이를 위한 對備에 무거운 짐을 안게 됨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人口의 老齡化에 따른 對備란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推移와 더불어 社會·經濟·文化的인 含蓄된 틀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특히 老人扶養이란 老人生活을 위한 福祉體系로서 段階的인 準備와 필요한 制度의 개선 및 정비, 그리고 老人에 대한 價値定立에 이르기 까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老人人口 그 자체의 推移와 特性變化를 기초로 老人福祉體系 構築도 가능한 것이며, 또 연구결과를 이를 뒷바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稿는 人口學的인 老齡化를 검토하는데만 초점을 둔 것이다.

II. 老齡化의 進行

人間生活에서 삶의 軌道 또는 生活週期는 多角的인 의미를 지닌다. 生涯의 과정은 幼年期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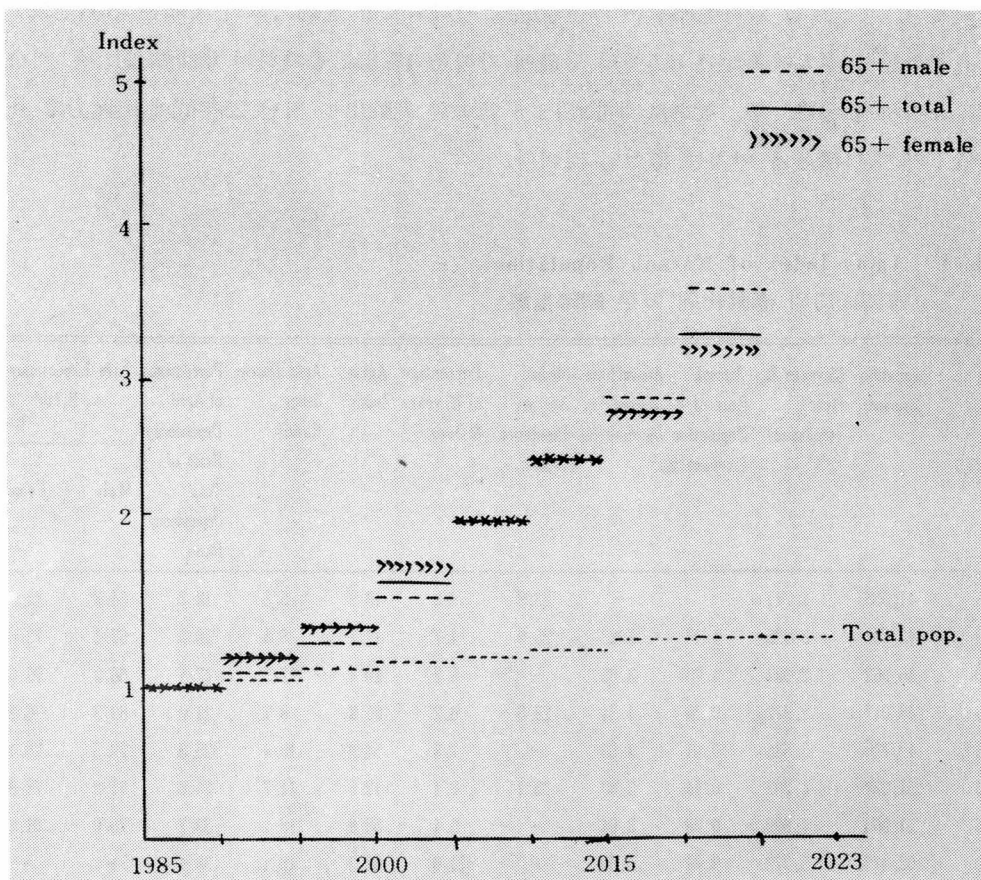
Figure 1. Increasing Trends of Aged (65 and over years) in Korea
65歲 이상 老齡人口의 增加趨勢



青少年期, 壯年期, 또는 老年期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이는 機能面에서 教育과 就業, 結婚과 出産 및 退職 등과 같은 多様な 機能과 役割 및 活動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나 老年期는 生涯週期の 終期에 속하며, 이 시기는 肉體的, 精神的 機能의 退化와 適應力의 減퇴가 社會的 役割變化로 이어지는 시기로서 生活에서 많은 도움이 요청됨은 말할 것도 없다.⁷⁾ 따라서 老齡 人口의 증가는 社會的으로 福祉體系의 構築과 制度的 장치가 뒤따라야 함을 뜻한다.

韓國人口는 이제까지 前近代的 幼年型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社會·經濟發展과 人口

Figure 2. Changing Pattern of Aged Increase Index based on 1985 Population Census
1985年을 基準으로 한 65歲 이상 老齡人口의 增加指數



7) M. W. Riley, M. Johnson and A. Foner,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Aging and Society*, Vol. 3, New York: Russel Sage, 1972.

動態率의 변화는 人口의 老齡化를 促進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人口構造上의 老齡人口 比率와 老人數의 增加로써 예측되는 점이다. 즉 1985年 人口센서스에서 1,741천명으로 報告된 65歲 이상 老人人口는 2005年에 3,688천명으로, 그리고 2023년에는 6,581천명으로 增加될 전망이다. 다시말해서 20年 間隔으로 老人人口는 두배씩 늘어나 21世紀는 老齡社會가 豫見되는 것이다.

1985年을 기준으로 할때 앞으로 人口增加는 미미한 반면 老人人口의 增加는 급속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2參照) 전체인구중 65歲 이상 老人人口 構成率은 1985年에 4.2퍼센트 水準 에 불과하지만 2010年에는 8.4퍼센트로, 그리고 2023년에는 12.5퍼센트로 增加할 것이다. 이 처럼 최근 1.2퍼센트의 人口增加率은 停止狀態로 귀착되지만 老齡人口의 增加는 3퍼센트 내 외를 유지하면서 老人扶養比는 6.5에서 3倍에 가까운 17.8로 增加하여 年少扶養比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즉, 앞으로 半世紀內에 급속한 老齡化는 지난 25年間에 出産力과 死亡 力의 低下가 人口構造에 미치는 영향인 것이다.

Table I. Aging Index of Korean Population.

韓國人口의 老齡化에 따른 關聯指數

Years	Population (thousand)	65 years & Over (thousand)	Annual Rate of Population Increase (%) ¹⁾	Annual Rate of Aged Pop. Increase (%)	Median Age of Population (years)	Percentage of 65 years & Over	Aging Index ²⁾	Aged Depen- dency Ratio	Percentage of Aged Dependency Ratio of Total Dependency Ratio	Life Expectancy at Birth ³⁾	
										Male	Female
1985	41,056	1,741	-	-	23.8	4.2	13.9	6.5	12.2	64.9	71.3
1990	43,601	2,025	1.13	3.23	25.8	4.7	17.1	6.8	16.0	67.1	73.6
1995	45,962	2,397	1.08	3.95	-	5.2	20.7	7.5	17.1	68.2	75.0
2000	48,017	2,972	0.78	4.34	29.6	6.2	26.8	8.7	21.0	69.3	76.2
2005	49,710	3,688	0.61	3.55	-	7.4	34.9	10.4	25.8	70.5	78.4
2010	51,028	4,282	0.44	2.83	33.1	8.4	42.5	11.7	29.8	71.8	79.8
2015	51,963	4,899	0.28	3.04	-	9.4	50.8	13.1	33.7	73.0	81.1
2020	52,473	5,772	0.01	0.36	-	11.0	62.3	15.4	38.4	-	-
2023	52,574	6,581	-	-	37.5	12.5	72.8	17.8	42.1	-	-

註 : 1) Estimated Value

2) Aging Index = P_{65+}/P_{0-14}

3) Estimated Value

人口의 老齡化는 일반적인 豫상을 넘어서서 되돌릴 수 없는 老齡社會로 진입될때 社會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즉 老人福祉를 위한 制度의 정비와 體系의 구축이 뒤따라야 하고 老人에게 적합한 職種開發과 老人保護를 위한 價値定立이 수반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 老齡社會가 갖는 의미는 老人生活이 안정되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社會的 氛圍氣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老人生活을 위한 代案과 준비는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다. 즉 老人生活이란 老人들의 特性을 감안하여야 하고, 그들이 成長해온 文化的 背景도 도외시할 수 없는 複合要因을 充足시켜야 하는 것이다. 65歲 이상 老人層에서는 性別 差異로 60퍼센트 이상이 女性 老人으로 구성되고, 獨身率이 높다는 점에서 실제 老人扶養은 女性을 위주로 한 扶養體系가 바람직하며, 또 이는 家族生活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平均壽命의 延長과 人口의 老齡化는 老人人口의 절대수 면에서만 고려할 수 없으며, 65歲 이상을 老人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그 對象은 多樣性을 갖게 된다. 즉 人口構造의 변화는 老人數를 증가시키면서 75歲 이상의 高齡者數도 증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高齡者들은 要保護的 위치에 있으며, 扶養에서도 절대성이 요구된다. 1985年 人口센서스는 75歲 이상 老人數를 523천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2005년에 1,030천명으로 두배나 늘고, 2023년에 1,953천명으로 1985年 65歲이상 老人數 1,740천명 보다도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1960年代初 多産期 人口가 移行되면서 高齡化를 促進시키고 있음을 생각해 되는 것이다.

이처럼 韓國人의 老齡化는 今世紀에서 급속한 出産力과 死亡力의 低下가 人口構造에 영향을 미치면서 2000年代 초기부터는 급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老齡化의 問題는 그 자체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産業化過程에서 人口의 都市集中, 家族의 分化 및 縮小現象에서 孤立化現象이 나타나기 때문에 老人扶養은 傳統的 家族扶養制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公的 扶養形態와의 並行體制가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 公的 扶養體制란 老人扶養에서 公的 體制와 家族體制가 유기성을 지니면서 老人을 專門人에 의해서 扶養토록하는 假想的 制度를 의미한다. 즉 家族員이 모두 社會活動에 參與할 경우 老人扶養은 小規模 老人集團을 형성하여 이를 도맡아 扶養서비스를 提供하는 育兒保護制度와 같은 形態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Ⅲ. 老齡化와 扶養

扶養은 家族의 주요기능 중 하나이며, 이는 家族의 紐帶와 共同의 생활터전을 이룩하는 바탕이 된다. 특히 家族에서 年少者의 扶養은 子女의 養育과 教育이 주종을 이루는 반면 老人扶

養은 肉體나 情緒 그리고 經濟的인 면에서 奉養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近代化와 産業化過程은 家族과 社會를 유기적으로 密着시키면서 家族規模와 機能을 縮小시켜 왔다. 즉 적은 子女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扶養負擔의 경감을 뜻하지만, 家族規模의 축소가 부양부담의 경감을 뜻하지는 않는다. 즉 뒤따르게 된 教育機會의 확대는 教育負擔을 증가시켰고, 壽命의 延長은 앞으로 老人의 扶養負擔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傳統的 家族扶養體制가 유지되는 가운데 老人扶養을 再論하는 점은 核家族化의 보편성과 家族의 生産機能이 社會의 共同協力에 의해서 추구되면서부터 家族成員 중 經濟活動能力을 가진 사람은 社會參與가 일반화되면서 老人의 家族扶養이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老人의 家族扶養을 문제시하는 것 만은 아니다. 家族은 血緣을 기초로한 生活共同體의 의미가 강조되면서도 成長背景이 다른 世代가 共同體를 이룰때 價値의 차이는 不協和 내지 葛藤의 소지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便宜한 삶을 누리기 위해 分家形態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分家形態를 유지하다가 老後에 活動力을 잃었을 경우에 子息들과 再結合한다고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分家를 하지 않았던 경우 보다도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또 老人扶養은 경제적인 점만으로 생각할 수 없고 肉體의 情緒的인 扶養이 뒤따라야 한다고 볼때 이 점은 家族만큼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社會構造의 변화에 따른 家族機能과 役割의 변화가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老人扶養은 별도의 考慮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우기 老齡人口의 急增과 社會構造의 多變化에서 의존할 곳을 잃은 老人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高齡으로 肉體的 쇠약과 慢性 退行性 病患을 가진 老人이 늘게 된다는 점은 家庭만으로 扶養의 한계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公的 扶養體制는 家族扶養 機能의 補完措置로서 요구되며, 이는 集團收容의 形態가 아니라 家庭의 장점을 살린 類似한 扶養形態를 뜻하게 된다.

또 老人扶養을 위한 公的 扶養體制란 未來社會에서만 예상되는 것도 아니며 현재에도 전체 老人 중 약 1.3퍼센트의 老人⁸⁾이 의존할 곳이 없어서 養老施設에 收容되고 있는가 하면, 家族構成面에서 老人單獨家口가 전체 老人家口 중 21퍼센트나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現實的인 問題이기도 한 것이다. 또 家族에서 未婚子女들과 同居形態를 취하는 24퍼센트의 老人을 고려하면 현재도 전체 老人 중 45퍼센트가 子女의 직접적인 扶養을 받지않는 경우가 된다.⁹⁾ 이처럼

8)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85, p. 353.

9) 林鍾權外, 韓國老人의 生活實態,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p. 25.

近代社會에서 家族의 分化和 便宜主義의 生活樣式의 追求는 依存을 필요로 하는 老人에게 疏外와 孤獨, 貧困과 疾病等 소위 四苦의 要因을 加重시키고, 이러한 老後生活의 否定的 要因은 앞으로 別도의 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好轉의 期待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家族生活에서 傳統規範은 쉽사리 바뀌어질 수 없고, 老人扶養을 家族機能에서 떼어 놓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社會變化에 老人生活이 適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家族構造의 변형에서 不調和的인 점으로 含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社會的 共同利益의 추구는 家庭을 休息處로 변모시켰고, 이러한 가운데서 老人 生活을 위한 體制와 制度開發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점은 老人扶養을 問題視하게 된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西歐의 福祉制度가 共同生活터전을 위해서 불가피했던 점이라면 우리의 老齡化에 對備한 福祉制度의 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주목되는 점이다.

論議의 焦點은 老人扶養 問題를 傳統的인 形態로만 생각하는데서 보다 커질 수 밖에 없다. 家族構造나 生活樣式이 바뀌어지고 그 가운데서 傳統的 扶養形態가 고수되기 어렵고 그럴 수 만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우리의 家庭이 家族中心의 共同體意識이 강조되면서도 個人中心의 自律性이 凝集力을 약화시켰고 그러한 가운데서 疏外와 葛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世代間 價値의 차이는 斷絶現象을 가져왔고 이는 일반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家族 內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老父母들은 자신들의 機能과 役割의 衰退에도 불구하고 엄격했던 權威가 存續되기를 바라며, 子女들은 自立能力을 갖추었음에도 傳統的 扶養形態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¹⁰⁾ 그러한 가운데서 乖離現象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예로써 젊은 子女 들은 學校나 職場에서 일할 때 老人들은 빈 居處를 지키는 가운데서 疏外와 孤獨感이 뒤따른 다면 이의 對應策으로써 老人만의 同屬集團을 만들어 자신들의 生活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方案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理論的 틀로서 제시할 수 있는 老人扶養의 核心은 老人들이 어떠한 狀況에서도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는 점에 있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老後生活이란 어디까지나 자신 들의 생활임이 분명하며 이는 象徴的 相互作用이나 交換論의 입장에서 資源과 能力의 감퇴로 빚어지는 疏外意識을 스스로 調整하고 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家族과 社會는 老人生活을 위한 福祉制度의 정비나 奉養意識을 갖고 共生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즉 制度的 側面에서 老齡 社會를 위한 對備한 老人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基盤으로 停年制의 調整과 停年後 알

10) 崔信德, “老人扶養과 規範定立”, 核家族화와 老年福祉,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p. 24.

맞는 職種의 개발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扶養意味로써 老年期の 健康保護를 위한 醫療 福祉制度나 所得保障을 위한 福祉年金制度, 또 의존할 곳이 없는 老人을 위한 公的 扶養體制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로서 老人生活이 充足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福祉서비스의 多樣한 體系開發이 요구되는 것이다.

특히 老人福祉란 扶養意識이 전제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이는 象徵體系가 아닌 실제생활에 만족을 줄 수 있는 體系的이고 集수된 努力으로 意識化가 되따르지 않기 때문에 制度 자체만으로 扶養의 의미를 다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傳統文化는 家族中心의 孝와 敬老思想이 주축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良俗은 앞으로 老齡社會에서 老人扶養을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음을 의심치 않는다. 또 福祉란 近視的 차원에서만 추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長期的인 眼目에서 계획되고 추구될 때 실현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福祉에 경험을 갖지 못한 우리는 理念의 定立과 아울러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한 教育에서부터 長·短期計劃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IV. 老齡化의 對應

老齡社會를 위한 對備란 간단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人口의 老齡化를 위해서 老人扶養은 “先家庭·後社會”의 원칙을 세워놓고 制度開發과 福祉策을 강구하고 있다.¹¹⁾ 아울러 정부는 1981년에 老人福祉法(法律: 第3453號)을 制定하고 老人健康과 生活安定을 위한 福祉增進策에서 福祉施設(養老, 療養, 會館 등)을 설립하며, 福祉相談, 健康診斷, 敬老優待, 職種開發, 住宅建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敬老憲章(1982)을 선포하여 敬老意識을 고취시키며, 醫療保險에서 醫療保障과 國民年金制度의 실시를 서두르고 있다.

이처럼 老齡社會를 위한 對備란 問題解決의 차원에서 보다는 問題의 豫防과 각종 제도의 정비나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기반구축 등 多角的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老齡社會는 人口學的인 측면에서 老齡人口의 증가와 이로 인한 扶養體系의 造成이 뒤따라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社會構造의인 측면에서 福祉體系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福祉體系란 外形的 틀로서만 충족될 수 없고 內面的 價值體系의 定立이 先行되어야 하며, 이는 社會的 共同體 意識과 倫理的 측면에서 敬老意識을 의미한다.

어느 社會에서나 扶養機能은 家族機能의 하나로 보편성을 지녀왔듯이 公的 扶養은 近代社會

11) 尹鍾周, “人口成長과 社會病理現象”, 人口對策세미나 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p. 10.

가 家族機能을 補完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韓國의 傳統文化는 家族制度를 확립 함으로써 扶養機能을 우선적으로 하였고, 여기서 孝와 敬老는 절대가치를 두어 왔음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扶養의 意味는 社會變化에 따라서 扶養者와 被扶養者間에 相對的 價値를 달리하게 되었고, 이러한 認識의 차이는 共同體의 意味를 강조하는 家族內에서도 葛藤의 素地를 남겨 놓았다.¹²⁾ 그러나 孝나 敬老의 良俗은 그 價値가 아직도 널리 存續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 老齡社會에서 家族과 社會의 共同體를 형성하는데 기틀이 될 것을 의심치 않게 된다.

이처럼 社會變動 過程에서 老人에 대한 扶養을 再論케 됨은 家族構造와 機能의 變化가 이를 受用키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미 老人의 家族扶養形態는 傳統的 形態와는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방안 모색이 이루어지지 않는에서 問題가 뒤따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老人扶養의 理想的인 형태를 가족부양으로 단정한다고 할때 오늘날 또는 미래사회 家族形態는 再論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扶養만을 위한 家族形態가 아니라 家族共同體의 意味를 유지할 수 있는 가운데서 狀況條件에 부합하는 家庭으로서의 변모를 뜻한다. 따라서 家族에 관한 별도의 연구는 扶養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福祉問題를 다루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또 社會制度的으로 家庭을 保護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때 老人扶養問題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老人扶養은 自活을 위한 補助役割이라는 점에서 老人을 스스로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間接的인 方案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각종 社會制度가 老人生活과 關連하여 自活의 機會를 갖도록하는 동시에 保護의 意味도 뒤따라야 함을 뜻한다. 즉 스스로의 經濟解決과 社會的 役割로써 보람을 찾도록 하는 方案이나 健康을 유지 保護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외에도 情緒的 紐帶를 갖도록하는 方案들이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年金制度는 停年에 따른 所得保障이라는 점에서 중요시될 수 있다. 그러나 停年制는 使用者立場에서는 企業의 活力을 유지하고 生産性을 提高시킨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個人의 老後保障面에서는 相反된 면을 지닌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管理職(70%) 및 事務職(56%)의 停年은 55歲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技術·生産 또는 販賣職은 50歲에서 약 1/2이 停年으로 되어있어 退職後 所得保障問題는 주목된다. 그러나 停年을 老人福祉의 차원에서만 주장되기도

12) 柳好信, “우리나라 主婦의 老人扶養意識·態度에 관한 研究”, 人口保健論集, 第5卷 2號,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pp. 50~52

13) 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經協資料, 第9卷 1號, 1978, p. 18.

어렵지만 老後의 所得保障과 社會的 役割을 延長시키며, 더 나아가서 遊休 勞動力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停年의 延長은 물론 退職後 적절한 就業機會를 가질 수 있는 制度的 補完은 老齡社會에서 기대되는 점이다.

또한 老齡社會가 갖는 의미는 經濟的인 老人扶養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人口의 老齡化란 保健·醫療面에서도 특이성을 갖는데 이는 慢性 退行性疾患의 비중이 높게된다는 점이며, 따라서 醫療費의 上昇과 病床의 占有率의 擴大를 要하게 된다.¹⁴⁾ 즉 老人의 保健·醫療와 같이 肉體的 扶養은 家族 자체로서 감당할 수 없고, 社會制度的인 면에서 이를 위한 支援이 뒤따라야 한다고 볼때 老人을 위한 保健醫療體系와 專門人力의 養成은 별도의 考慮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老人을 위한 專門療養機關의 擴大 뿐만 아니라 專門醫療人은 물론 再活서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要員의 訓練도 포함된다. 또 老人福祉서서비스 施設은 公的 扶養을 위한 養老施設로만 국한할 수 없고 老人들의 다양한 要求를 含蓄할 수 있는 方向에서 考慮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老齡社會란 福祉負擔의 증가와 이에 따른 社會構造의 變化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는 家族과 社會가 連繫性을 가지면서 狀況的 條件에서 삶의 터전을 構築해야 하는 課題를 안게 된다. 우리는 老齡社會가 먼 未來의 社會에서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40代의 젊은 世代들이 老後에 살게될 社會라는 점을 認識해야 하고, 그러한 社會에서 특정 제도(年金制度나 醫療制度 등)만으로 老後生活과 相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構造的 機能的인 점은 미리부터 예측하고 이에 따른 對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世代의 人口의 急變은 앞으로는 어김없이 老齡化를 加速化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돈되지 못한 生活에서 준비가 뒤따르지 못할 때는 老後問題는 보다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V. 結 論

人口轉換의 귀결로써 老齡化는 불가피한 現象이다. 韓國人口는 今世紀에서 급변했던 出產 또는 死亡力의 低下가 2000年 初期에 급속한 老齡化의 進展을 예고하고 있다. 즉 오늘날 30~40代의 젊은層은 老齡社會에 살게될 것이 분명하다. 老齡社會는 늘어나는 老人을 위해서 福祉問題가 우선되어야하며, 이는 家族과 社會가 다같이 감당해야만 하는 課題인 것이다. 특히 老齡社會에서 性別差異 死亡力으로 인한 老人 중 60퍼센트 이상이 女性老人으로 구성하게 되며,

14) 文玉綸, “人口成長과 保健醫療”, 人口對策세미나 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이를 위한 準備란 삶의 條件에서 複合的인 면을 要하게 된다. 따라서 長期的 차원에서 的 福祉 體系의 구축과 準備란 앞으로의 狀況을 豫見하여 이에 알맞는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이 다.

參 考 文 獻

- 孔世權, 林鍾權, 金美謙, 韓國의 死亡力과 死亡原因,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3.
- 經營者協會, “企業停年制의 現況”, 經協資料, 9(1), 1978.
-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1985.
- 金日炫, “韓國의 人口成長推移와 展望”, 人口問題와 對策세미나 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金正根, “우리나라 平均壽命의 過去와 現存와 未來”, 韓國人口學會誌, 17(1), 1984.
- 文玉綸, “人口成長과 保健醫療”, 人口問題와 對策세미나 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石南國, 李朝末期 以降 1925年에 至る朝鮮人口의 推計について, 函館大學論究, 第2輯, 別刷, 昭和 41年 12月.
- 柳好信, “우리나라 主婦의 老人扶養意識·態度에 관한 研究”, 人口保健論集, 5(2),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 尹鍾周, “人口成長과 社會病理 現象”, 人口問題와 對策세미나 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林鍾權外, 韓國老人의 生活實態,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5.
- 崔信德, “老人扶養과 規範의 定立”, 核家族化와 老人福祉,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 Keyfitz, Nathan, *Applied Mathematical Demography*, New York :Wiley, 1977.
- Lopez, Alvaro, *Problems in Stable Population Theory*, Office of Population Research,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1961.
- Lotka, Alfred J., *Théorie Analytique des Associations Biologiques, Deuxieme Partie : Analyse Demographique avec Application Particuliere a l'Espece Humaine*, Paris : Hermann, 1939.
- McFarland, David D., “The Aged in the 21st Century: A Demographer's View”, In Lissy F. Jarvik (ed.), *Aging into the 21st Century: Middle Agers Today*, New York : Gardner, 1978.
- Riley, M. W., Johnson, M. and Foner, A., *Aging and Society*, Vol.3, “A Sociology of Age Stratification”,

New York, Russel Sage, 1972.

Siegel, Jacob S., "On the Demography of Aging", *Demography*, 17(4),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1980.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Population Studies*, No. 98, New York, 1986.

Abstract

Demographic Aspects of Aging in Korea

Sae-Kwon Kong* · Cho-Kang Kim**

Aging trend is the inevitable phenomenon as a result of population transition. Rapid change of population (decline of fertility and mortality) of Korea in this century predicts the expansion of aging trend. It is obvious that today's young generation in their under 40s will live in the future aging society.

Aging society demands welfare services for the growing aged population, which both family and society should prepare and carry out. Particularly, aging society is composed of the female aged with more than 60 percent of total due to longer life expectancy of female, thus requiring complicated facets of welfare policy focused on the provision for life.

Therefore provisions should be prepared for establishing the welfare system at a long-term dimension with an appropriate direction predicting the future condition.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 Associate Professor, Ewha Women's University.